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.

발 의 자 : 진성준 · 김영진 · 안태준
황정아 · 이기현 · 이재정
위성곤 · 문진석 · 박홍근
김태년 · 허영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 · 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 · 보존 · 연구 및 전시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 ·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,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 · 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49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·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 및 제46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양</u> <u>여 및 사용허가·대부 등) ①</u>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</u> <u>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</u> <u>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</u> <u>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</u> <u>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</u> <u>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</u> <u>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</u> <u>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</u> <u>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</u> <u>재산법」 제35조 및 제46조와</u> 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</u> <u>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</u> <u>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</u> <u>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</u> <u>으며,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</u> <u>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